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2호 [루게 제2267호]

주제 103
(2014). 3

22

토요일

음력 2. 2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

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

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인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

서 지난해 인민군대의 사업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강래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래호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5월 새로 건설된 이곳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훌륭히 확립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고 지식

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는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은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건설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전자도서관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당에서 보내준 최신설비들까지 그쁘히 갖추어놓으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과학기술보급기지가 마련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볼수 있게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은 물론 이름있는 대학들과 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 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설계연구실, 가공 및 조립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도입한 지열냉난방설비의 리용실태도 알아보시고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모범이라고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안고 최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사격경기와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으로 나뉘어 진행된 사격경기는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었다. 권총사격경기에서는 군사지휘관조가, 자동보총사격경기에서는 정치일군조가 우승하였으며 종합우승은 군사지휘관조가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에 대한 총화와 평가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이 맡겨준 무겁고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었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되는 사격경기장은 미세승냥이들에 대한 치솟는 중요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주 조직하는 목적은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활력이 오늘 경기에서 뚜렷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군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격훈련의 빈바람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책항공군대학이 권총, 자동보총사격경기에서 모두 이김으로써 종합우승을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사상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영웅한 비행사들은 조국의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며 과감하고 가슴후련한 전투행동으로 비행훈련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함포가 그대로 육탄이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영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란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여성총창 《인민의 환희》, 여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여성2중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여성3중창 《귀향의 노래》, 여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 오 그리운 내 마을아》, 여성총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여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여성총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중목들이 울랐다. 공연이 끝나자 관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조직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당의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훈련장마다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오늘 진행한 경기가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들로 키우는데

사수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할 때마다 관란자들속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를 자

주 조직하는 목적은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활력이 오늘 경기에서 뚜렷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군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격훈련의 빈바람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책항공군대학이 권총, 자동보총사격경기에서 모두 이김으로써 종합우승을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사상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정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란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제103(2014)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 성, 중앙기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 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 기간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이번 축전은 주제사상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가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영생축전의 꽃축전으로 아로새겨질것이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천만 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2월의 봄이 있어 조선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

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재미동포에 술단체인 우륙교향악단 단장이 쓴 글을 실었다. 노래는 조선의 근로대중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 《2월의 봄입니다》를 부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래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탄생하신 2월의 봄이 있어 조선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세계의 시선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과연 조선이 미국의 압살책동을 견디어내겠는가. 적들은 조선의 《붕괴》가 기정사실인듯이 언론들을 통해 떠돌아들었다. 이러한 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1995년 새해 아침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다박술초소였다.

재미동포 예술인이 김정은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가슴가슴에 다가오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가슴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2월의 봄은 우리의 영원한 봄이다. 겨울(적대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악착하게 발버둥을 치지만 봄(조선의 힘)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승리의 봄을 안아오는 위대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령도자와 민중이 혼연일체로 뭉친 위대한 힘, 무진막강한 조선의 힘을 세계는 알게 되었다. 근로대중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은원수를 세상사람들은 태양이시고 은인이시라고 칭송하고있다. 본사기자

통일은 애국이고 분별은 매국이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애국이란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관심을 가진 사람 들치고 누구나 애국에 살기를 바라지 애국자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가까와오지만 오늘도 과거 일제통치에 협력한 행위가 친일매국행위, 민족반역행위로 역사와 민족의 규탄을 받는것도 이때문이다. 외세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겼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이 최대의 애국이었다면 오늘 최대의 애국은 조국통일이다. 분별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별은 곧 매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아니면 분별을 꾀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빛나는 길이다. 외세에 의하여 70년 가까이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별은 우리 겨레에게 해

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별로 하여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분별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분별로 하여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동족대결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지체되고있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한민족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겨레가 부모님으로 갈라져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살아오고있는것도 참을수 없는 고통이며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금강산에서 모처럼 마련되였던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는 분별의 참혹한 고통과 통일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다음해는 민족분별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분별의 이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율이 되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율기체와 같다.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루면 존엄있는 통일강국으로 위용될것이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새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반면에 대

결과 분별을 추구하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매국행위로 된다.

지금 겨레의 통일열기는 날로 높아가고 뜨거워지고있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이 거센 통일지향과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의지이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헤아리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대회를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김철웅

기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련이어 보내고 그 실현을 위해 대법하고 야망있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조치들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찬물을 받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시대적환경에서 일신의 안일과 부귀만을 생각하면서 분별의 비극, 겨레의 통일운동을 외면하는 사람은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은 겨레는 민족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김철웅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의 념원이 담긴 한편의 노래가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6.15시대와 함께 태어난 이 뜻깊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민족이 당해는 분별의 아픔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통일강산에서 누리게 될 가슴벅찬 기쁨이 뜨겁게 와닿는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가 펼친 뜨거운 상봉의 무대에서 서로 만나 기쁨과 화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어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길과 화회의 6.15시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북과 남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한편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 민족끼리! 불과 여섯글 자밖에 안되는 짙막한 말속에 는 민족의 자주도 있고 단결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을 위한 힘과 지혜도 다 갖들었다.

오늘 우리 겨레가 들고나갈 통일의 기치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이며 온 겨레가 이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일 때 바라는 통일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성중삼

얼마전 남조선의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제1차 평화통일 원로기도회》를 열고 《대박》만을 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기도회에서 총회장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지 70년이 되어온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은 (대박)으로 되는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평화에 대해서도 공부해

《진정성을 갖고 10.4선언 실천해야》

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월 핵전문가들이 발표한 《2014년 미국핵전력보고서》를 언급하며 《4대강대국들이 (한) 반도를 둘러싸고 잠수함 각축전을 벌리는 등 동해를 누비고있다.》 등 《우리 (한) 반도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모두 깨어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가 과거 간헐적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기는 했지만 《통일이 되는 날까지》 무기한 정기적인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은

그는 《한 (정부) 로선 (대박) 이니 수사를 램발 함께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10.4선언과 경제교류를 실천해야 평화도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열리는 《평화통일 원로기도회》에는 남조선의 여러 기관과 단체,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협의회》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정보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광주, 전라남도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11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시대착오적인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민이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원 원장과 법무부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사건의 진상도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조작된 간첩사건은 현 《정권》유지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정보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남도지역단체들도 이날 전라남도 려수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보원해체

를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지금 공지에 불린 정보원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쓰며 사건의 진상을 가려워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을 정치공작대상으로 각종 사건조작을 일삼는 정권은 범죄집단이며 사회의 악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정보원을 해체하고 그 우두머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조작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내막이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초 정보원은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한 인물을 복에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구속수사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넘겨받아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이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정보원과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하여 피소자의 간첩혐의를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에 바빠맞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보원으로부터 혐의자가 복에 드러났었다는 제3국의 《출입경기록》 문서 3건을 증거로 재판에 제시했다.

혐의자의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문서확인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나라에 조회한 결과 그것이 모두 위조된것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CBS》, 《KBS》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사실은 전해지자마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야당인 민주당은 즉시 성

라.》, 《남재준을 파면시키라.》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자루속의 송곳은 갈수록 깊어질수록 진상은 갈수록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KBS》방송은 지난 3월 4일 검찰조사를 받은 한 남자가 로임 600만원 파 문서위조의 대가로 1000만

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중인이 있는 방에 일반 사람들의 패왕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금지표식조차 없었으며 그가 벽면에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이라는 글씨가 지워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조작사건장본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범서국회의》가 11일 서울 광화문주변에서 초보집회를 가지고 정보원의 날조행위를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때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정보원이 이번에는 간첩사건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현 집권자가 유감표명하였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보원원장의 해임을 약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자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다는것은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

가 폭로되었을 때 한 말과 똑 같다고 하면서 그때도 결과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였던 특별수사조의 해체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간첩조작행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장본인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금기야 간첩사건이 러졌지만 그것도 조작이라는것이 드러나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자 집권자가 사건이 자기와 관계없는듯이 말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작의 끝은 과연 어떤가고 하면서 사실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건설업체와 시청공무원이 짜고 공문서를 조작하여 건설한 체육관이 얼마전에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처럼 조작은 결국 붕괴를 부르며 《정권》도 매몰치자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정보원》의 내용을 남들 시키려던 보고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수적일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라것은 전부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에 암시를 품은자들의 증언으로 채워져있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가 《북인권조사보고서》에 던지는 의혹의 그늘

지난 2월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가 《북인권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지 꼭 한달만인 지난 17일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렸다.

《북인권조사위원회》가 또다시 최종보고서라는것을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하고 이번에는 결의안까지 채택한다고 버둥대지만 그야말로 맥북은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라는것이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암시의 위위망을 조여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조작품이라는것을 국제사회는 너무도 명백히 투시하고있기 때문이다.

《북인권문제》라는 자료 보따리를 꾸미는것이 하연의 영연 남을 속이기에 그 안의 내용이라것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보고서》의 내용을 남들 시키려던 보고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수적일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라것은 전부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에 암시를 품은자들의 증언으로 채워져있다.

원을 정보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그가 정보원으로 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받아오면서 횡횡했고 결국 정보원이 출구문서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련합뉴스》는 정보원에 협조한 인물이 자살을 시도한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불쾌한 생각뿐이다. 미국이 이런 협잡배들과 입맞춤을 하면서 《대표》니 뭐니 하고 추어올리는 그 흥심이 무엇인지 누구인을 간파하지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는데서 의탁할 곳이란 《탈북자》들과 같은 민간단체들밖에 없기에 지금 또다시 악취나는 오물보따리를 유엔무대에 펼쳐놓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걸하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처지는 생각할수록 가슴쓰럽기만 하다.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이 《북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 들고다니며 여론의 관심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땅신밖에 당할것은 없다.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가 국제무대에서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보고서》가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앙탈을 부린것은 략조가 비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앞날을 예언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